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Reuters: 3월 미 소비자심리지수 크게 악화
- Bloomberg: ‘연준, 올해 2차례 금리 인하...9월부터’

[미국 금융]

- Bloomberg: 금값 3천 불 돌파...관세 정책 등 경제 불확실성으로

[트럼프 행정부]

- NYT: ‘연방정부 섣다운 피하게 될 듯’
- Bloomberg: 미 기업들, 투자자들에 “DODGE 조치, 기업들에게 유리”
- CNBC: “미 관세로 신규 주택 비용 1만 불 추가 발생”

[중국 경제]

- Bloomberg: 중국, 무역전쟁 속에서도 경제 회복세 전망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Bloomberg: 한국 GM 노조 리더들, 트럼프 관세 우려로 미국으로 향하다
- WSJ: BMW, 관세로 올해 11억 불 수익 손실 전망
- WSJ: 테슬라, 중국서 저가형 모델 Y 개발 추진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 정보

[미국 경제]

Reuters: US consumer sentiment deteriorates sharply in March **3월 미 소비자심리지수 크게 악화**

- 미국 소비자심리지수가 3월에 크게 악화되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따른 무역정책 발생이 물가와 경제에 부담을 줄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급등했다.
- 오늘 금요일 발표된 미시간대 소비자 추정치에 따르면 2월에는 최종치가 64.7이었으나 3월 들어 57.9로 크게 떨어졌다. 전문가 예상치는 63.1이었다.
- 소비자들의 향후 12개월 인플레이션 예상치는 2월의 4.3%에서 이번에 4.9%로 예상했으며, 향후 5년간은 2월의 3.5%에서 3.9%로 예상했다.

Reuters 기사

Bloomberg: Fed Expected to Cut Rates Twice This Year, Starting in September

‘연준, 올해 2차례 금리 인하...9월부터’

- 블룸버그 뉴스가 이코노미스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연준이 올해 상반기까지는 금리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하반기에 9월을 시작으로 두 차례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 예상했다.
- 연준 관리들은 신호를 보냈는데, 트럼프의 무역 정책으로 인해 일정 기간 금리 동결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관련 설문에서 참여한 이코노미스트들은 성장은 둔화되고 인플레이션은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WSJ 기사

[미국 금융]

Bloomberg: Gold Breaks Through \$3,000 as Trump Turbocharges Record Rally

금값 3천 불 돌파...관세 정책 등 경제 불확실성으로

- 처음으로 금값이 3천 불을 돌파했다.
- 금요일 금값은 0.4% 오른 온스당 \$3,001.20을 기록했다.
- 트럼프의 공격적인 관세 정책, 그리고 글로벌 경제 혼란, 이에 따라 중앙은행들이 달러 외 자산을 다각화하기 위한 이유 때문이다.
- 고금리와 강달러에도 불구하고 금값은 상승하고 있다.
- 전문가들은 금이 중요한 유동성을 제공하면서도 구매력을 유지해주는 안전자산이라고 평가했다.

Bloomberg 기사

[트럼프 행정부]

NYT: Trump Administration Live Updates: Schumer Backs Spending Bill and Lines Up Democratic Votes to Avert Government Shutdown

‘연방정부 셧다운 피하게 될 듯’

- 양당이 새해 예산안을 합의하지 못하는 가운데 오늘 밤(토요일 자정) 연방정부가 셧다운 마감날을 앞둔 상황에서 상원 민주당 지도자인 뉴욕주의 첫 슈머 의원은 공화당의 예산 방안에 투표하겠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 그는 공화당의 예산안이 문제가 많지만 공화당 예산안을 막을 경우 정부가 셧다운되면 오히려 트럼프와 민주당의 ‘힝포’가 심해져 연방정부 기관들의 운영이 파행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셧다운을 이용하여 연방정부의 프로그램을 삭감하고 공무원들도 계속 해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 한편, 최근 하원을 통과한 공화당 안은 국방비 60억 불 증액과 비국방 분야 1백30억 불 삭감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었다.

NYT 기사

Bloomberg: US Companies Tell Investors DOGE Cuts Will Ultimately Pay Off

미 기업들, 투자자들에 “DODGE 조치, 기업들에게 유리”

- 미 기업 책임자들은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연방 정부효율부의 공공부문 삭감 조치들에 따라 민간 기업들의 수익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투자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려 애를 쓰고 있다.
- 기업들에 따르면 연방정부의 다운사이징이 단기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모르지만, 오히려 민간 기업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기업들은 실적 발표에서 투자자들에게 이러한 긍정적인 입장을 알리고 있다.
- 즉, 오히려 민간 기업들이 자원 배분에 있어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예컨대 중간 규모 기업들의 경우 규정 준수 비용이 줄어드는 등 규제 완화가 기업의 생산성을 높여준다고 말했다.

Bloomberg 기사

CNBC: Tariffs to add as much as \$10,000 to the cost of the average new home, trade association says

“미 관세로 신규 주택 비용 1만 불 추가 발생”

-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일부 관세를 한 달간 유예키로 했다.
- 그러나 관세가 계속 시행될 경우 새로운 주택 건축비용으로 많으면 1만 불이 추가 소요될 것이라고 전국주택건축협회(NAHB)는 밝혔다.
- 이 기관에 따르면 목재는 주로 캐나다에서, 석고(gypsum)는 멕시코에서 수입되며, 중국에서 가전제품뿐만 아니라 철강과 알루미늄이 수입된다.

CNBC 기사

[중국 경제]

Bloomberg: China's Economy Forecast to Show Resilience as Trade War Begins

중국, 무역전쟁 속에서도 경제 회복세 전망

- 중국은 초기 무역전쟁 여파에도 1~2월 안정세를 보이며, 2025년 약 5%의 성장 목표를 정하였다.
- 경제 데이터 예상치로, 산업생산은 전년 대비 5.3%, 소매판매는 3.8%, 고정자산투자는 3.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 중국의 소매판매는 3.8% 증가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 성장세가 둔화되었다. 정부는 소비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를 위해 3000억 위안 규모의 보조금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다.
- 주택 시장의 침체가 경제 활동을 위축시킨 가운데, 주택 가격 하락세는 5개월 연속 완화되며 안정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고정자산투자 역시 3.2% 증가해 지난해와 유사한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Bloomberg: GM Korea Union Leaders Head to the US Amid Trump Tariff Worries

한국 GM 노조 리더들, 트럼프 관세 우려로 미국으로 향하다

- 한국에 위치한 제너럴 모터스(GM) 공장의 노조 리더들은 미국행을 결정하고 GM 고위 경영진과의 면담을 추진 중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수입차 관세 부과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노조는 GM의 수입차 계획과 관세 대응 방안을 확인할 예정이다.
- GM코리아는 지난해 50만 대 가까운 차량을 수출했으며, 이 중 약 80%가 미국행이었다. 노조는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한국 내 공장이 철수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 GM코리아 노조는 미국 자동차 노조(UAW)와도 만나 관세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UAW는 현재 트럼프 행정부와 '자유무역의 재앙'에 대한 협상을 진행 중이며, 한국 노조는 충돌보다는 상호 논의를 원한다고 밝혔다.

WSJ: BMW Expects \$1.1 Billion Earnings Hit From Tariffs This Year

BMW, 관세로 올해 11억 불 수익 손실 전망

- BMW는 미국, 중국, 유럽연합 간의 무역 긴장으로 인해 올해 약 10억 유로(약 11억 불)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관세와 중국 내 수요 변화로 올해 수익은 정체되고 판매는 소폭 성장에 그칠 전망이다.
- BMW는 자동차 부문의 이익률이 기존 목표치 8% 이상에서 5~7%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부과된 관세로 인해 이익률이 약 1% 포인트 감소했으며, 미국의 관세 인상이 지속될 경우 추가로 0.5% 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 이에 따라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조정하고, 미국 내 부품 생산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올해 새로운 차량 모델을 연이어 출시해 수요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

WSJ: Tesla Develops Cheaper Model Y in China to Battle Growing Competition

테슬라, 중국서 저가형 모델 Y 개발 추진

- 테슬라는 중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모델 Y보다 생산 비용을 20~30% 낮춘 저가형 모델 Y를 개발 중이다. 해당 모델은 우선 중국에서 출시되며, 이후 미국과 유럽에서도 판매될 가능성이 있다.
- 테슬라의 지난해 중국 내 판매량은 증가했지만, 전체 전기차 시장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시장 점유율은 12%에서 10%로 하락했다. 테슬라는

저가형 모델 Y 개발과 함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전자 보조 시스템 개선에도 나서고 있다.

WSJ 기사

[보고서]

美증시 관세전쟁 격화에 또 하락...S&P지수 1.4%↓ 조정국면 진입

S&P 지수, 고점 대비 10%↓... "굽히지 않겠다" 트럼프, EU에 또 보복관세
美재무 "시장변동 걱정 안해"에 투심 냉각... 안전자산 선호로 금값 3천달러 육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유럽연합(EU)에 대한 보복 관세 위협 등 관세전쟁 격화로 인한 시장 불안감이 커지며 13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 지수가 동반 하락했다.

불확실성 확대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자극하며 국제 금값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온스당 3천 달러선 돌파를 눈앞에 뒀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77.78포인트(-1.39%) 내린 5,521.52에 거래를 마쳤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